

2014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안건 처리

남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3개 상임위 7개 안건 처리



남구의회는 지난 15일부터 6일간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처리와 의원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상임위 활동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이어졌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재범)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는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4년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구본청 및 사업소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주민의 적당 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토지매입 등으로 일부 행정운영

동과 관할구역이 맞지 않는 지번을 실제와 일치시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지면이용 광고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남제고지서에 광고문단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것은 하자있는 남제고지서가 되어 그 효력에 있어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30-977(1999.8.2.)호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가결)

—남구 지역 건강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산, 강점, 자원, 요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지역사회보건강수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주민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남구의회 의원 인터뷰 ④ 김 성 경 의원

“전공 살려 남구 문화·복지전도사 될 터”

“혹시 우암동 시장에 가보셨어요? 손님이 없어 상인들끼리 물건을 팔아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는 우암동 잘못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적어도 살기 힘들어 목숨을 끊는 일이 남구에서는 없게 하고 싶어요.”

남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을 묻는 질문에 김성경 의원은 카랑카랑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지혜를 지켰다.

김 의원은 근래 남구에서 가장 바쁜 구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도통 인터뷰 날짜를 잡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가보고 챙겨야 할 지역이 많아서요.” 김 의원은 정당 추천을 받아 남구의회에 발을 들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초선 비례대표. 해서 관할 지역구가 없지만 넓게 보면 남구 전역이 자신이 챙겨야 할 지역구인 셈이다. 비례대표이다 보니 재선, 삼선의 부담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지역 극단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하던 김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캠프에서 잠시 활동한 것 외에 이렇다할 정치적 경력은 없다. 스스로도 짧은 정치 경력이 흠이라는 김 의원은 그러나

당선 직후부터 특유의 근성을 살려 온 남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붙잡고 이야기 듣고, 공무원에게 물어가며 무서운 속도로 현실 정치를 파고 드는 중이다. “솔직 설득했는데 결국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때 ‘아, 의정 생활이



김성경 의원은 연극배우와 아줌마의 근성을 살려 남구를 문화복지의 도시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들이 남자들보다 더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저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이 땅의 아줌마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상임위 배정 때 주민복지도시위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래도 비록 첫 손잡이를 마셨지만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밑에 부처리고만 했지 대안을 찾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거죠.” 그는 이를 계기를 정치를 시작하게 된 초

심을 다시 새겼고 정치 기술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가졌다. 그러나

를 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내는 게 정치공학이라면, 좌절을 맛봤지만 더 큰 교훈을 쌓았으니 ‘정치적’으로는 이긴 게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무의식중에 사람들은 ‘원래’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주민을 위한 일에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뜯고 고치고 바꿔야죠.” 푹 버리는 정치 신인의 행보가 주목된다.

연극배우 출신 ‘아줌마 근성’으로 강단있게 업무 추진

“주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복지 관련 의정활동에 전념”

5분 자유발언

향토지 집필위원 6명

남구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김경명 의원
(문현1.2.3.4등)

남구 향토지 ‘내 고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발간 그 이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집필 위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구청과 남구문화원이 지원 법규에 근거해 향토사 연구회를 구성, 스토리텔링 및 향토지 발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지역원로, 전문가, 문인대표 등 6명은 사명감으로 15차례 회

의와 7개월간의 노력 끝에 잊혀져가는 남구 이야기에 대한 소재 및 자료제공,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제공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체계적 정리, 또한 수집된 남구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과 남구 향토지 발간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토사 연구 위원들의 활용방안과 좀 더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좀 더 다른 방향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향토지 연구위원들의 활용은 남구신문을 통해 남구의 역사 등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하는 방향과, 평생교육과 연계한 행사시 강사로 선정하는 방안, 남구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또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향토사를 사진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자들이 틀에 맞게 짜 맞추는 단순한 역사책으로 학생들마저 멀리하는 고리타분한 고서(古書)의 한계를 창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위원을 확충하고 수시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둘째, 발굴한 자료를 연극이나 영상화하여 다양한 참여 역사로 발전시켜 그 결과를 다시 향토지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향토지를 영상화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영상미대에 인력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넷째, 사업에 필요한 약간의 예산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자료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없이는

BIFC, 남구의 보물 안돼



이강영 의원
(문현1.2.3.4등)

초선인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남구의 자랑인 국제금융센터가 우리 남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부산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민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의 멋진 모습을 어떻게 떠올리고

있을까요?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교통이 막힙니다. (문현동 주민 인터뷰)”

남구와 부산의 자랑거리 금융센터가 지역 주민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뜻밖이지 않습니까? 주민 지적대로 교통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공학자들은 현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교통을 꼽습니다. 도시에서 길과 그 길을 이어주는 교통체계는 도시를 살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금융센터가 아무리 우리 남구에 있다하더라도 남구와 제대로 이어지는 교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남구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동네에서는 금융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교통체계와 길이 맞지 않아) 문현교차로로 내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오는 게 제일 빠른 실정입니다. 버스 노선이라도 전포동으로 돌려 문현로타리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현동 주민 인터뷰)”

이 구민의 말씀처럼 국제금융센터의 교통문제는 남구청이 독자적으로 해결책을 낼 수 없지만,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두운 구름 밖을 나가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온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우리 남구민들의 자랑스런 일자리이자 이상향이 되기 위해, 지금의 교통문제라는 먹구름을 뚫고 푸른 창공을 볼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접수처

- 남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snamgu.go.kr】
(참여광장 → 의회에 바란다)
- 전화 (607-6521 ~ 6)
-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 문의처 : 남구의회사무국 ☎607-6521 ~ 6

2014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접수 안내

부산남구의회에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의 불합리한 행정집행사항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14. 11. 1. ~ 11. 20. (20일간)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지난 17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재범)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안건을 심사했다.

공부하는 남구의회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 특강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 의원들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사례,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 받았다. 강의 후 질문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져 강의 시간 내내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이번 강의는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에 무게를 뒀다. 특강을 마친 한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다수인 제7대 의회에 이번 특강은 무척 의미 있고 시기 적절한 강의였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뜻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의회는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관한 특강을 받았다.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이번호에는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남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윤리 준수사항 및 세부 실천규범, 겸직신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남구의회 의원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본 조례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1편 의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